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UNDER 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이봉우 유계화 선교사 선교편지(2025 년 4 월)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 년 새해도 벌써 4 월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부활절을 보내며 그동안 태국 선교지에 있었던 여러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 태국성도 집에 있는 우상을 철거하다



지난해 말 다른 도시에서 먼저 믿은 언니의 전도로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가 태국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 월달에 자신의 집 앞 마당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부와 태국 전도사님과 태국교회 청년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마당에 있는 우상을 철거하고 집안에 붙어 있는 여러가지 부적들도 제거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주님을 영접한 언니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 하시고 또한 우상을 버리는 믿음까지도 갖게 하심을 봅니다.

◆ 한글학교 구정맞이 윷놀이와 세배하다

교민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푸켓한글학교에서 구정을 맞이하여 선생님께 세배를 드리고 윷놀이와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푸켓한인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글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푸켓 선교 축구대회를 개최하다

2 월 18-19 일 양일에는 푸켓한인교회 주관으로 선교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경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축구대회를 기획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리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지난 20 년간 한 건물의 1 층과 2 층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며 이웃 사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 월에는 태국 17 노회 노회장님을 모시고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한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마치 축제와 같았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

1.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2.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3. 태국교회가 좀 더 안정되고 넓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 년 4 월 23 일

이봉우 유계화 선교사 올림